



“국내 농산물 안전하다”

상추·딸기등 농약잔류 전혀 문제안돼



우리농산물 애용 **농진청 조사** 소비자 인식전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같은 사실은 농촌진흥청이 올해 2월중순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광주·대구·부산지역의 33개 농가포장 및 시중판매상에서 「상추」 표본을 채취하여 농약잔류실태를 검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추의 경우 설정대상 농약인 「이피엔」과 「다이아지논」

성분은 1점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배추에 10ppm까지 잔류가 허용되는 「베노밀」은 단 1점에서만 보건사회부가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의 1/24에 불과한 0.41ppm이 검출되었고, 일본에서 채소류에 2ppm까지 잔류가 허용되는 「스미렉스」의 경우 14점에서 잔류허용기준의 1/18에 불과한 0.11ppm의 극미량만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식품이라고 밝혔다.

◎ 촛점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산물	농약성분	잔류허용 기준(A) (ppm)	검사결과		대비 (B/A)	비 고
			검출빈도	잔류량(B)		
상 추	베노밀	10(배추/ 미국)	3%	0.41	1/24	이피엔, 다이아지논은 불검출
	스미렉스	2(채소류 /일본)	42	0.11	1/18	
딸 기	캬탄	5	5	0.073	1/68	이피엔, 다이아지논, 마라치온, 파라치온, 메프, 홀렛 등은 불검 출
	디크론	10(FAO/ WHO)	9	0.008	1/1250	
	스미렉스	2(채소류 /일본)	40	0.124	1/16	
	빈출	10(FAO/ WHO)	65	0.073	1/137	

* 잔류량은 검출시료의 농약성분 잔류량 평균임.

또 딸기에 대해서도 4월중순~5월상순에 걸쳐 서울·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등 6개 지역의 55농가포장 및 시중판매상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농약잔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정대상농약인 「이피엔」 「다이아지논」 「마라치온」 「파라치온」 「메프」 등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캬탄」만 조사점수의 5%에 해당하는 3점에서 0.073ppm이 검출되었는데 이 수치는 잔류허용기준인 5ppm의 1/68에 해당하는 아주 미소한 양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딸기에서 미국등지에서 규제하고 있는 「홀렛」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본에서 채소류에 규제하고 있는 「스미렉스」성분이 22점에서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양이 허용기준치 2ppm의 1/16인 평균 0.124ppm에 지나지 않으며, FAO·WHO에서 규제하고 있는 「디크론」성분은 불과 5점에서 허용기준치인 10ppm에 크게 못미치는 0.008ppm의 극미량이 검출, 잔류농약규제 공포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농약잔류실태를 조사한 것은 지난 9.1부터 실시

되고 있는 28개 농산물 17개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 시행에 대비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다.

특히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에 훨씬 밑돌게 나타난 것은 겨울영농교육을 비롯, 안전사용에 대한 각종 특별교육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10월과 11

월에 쌀과 사과에 대해서도 농약잔류량을 조사하여 영농기술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약사용자들이 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잔류규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식품임을 이해하여 안심하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 **스크랩**

主婦90% “上品쌀 사먹는다”

서울지역 5百명조사…86%가 市中「무공해쌀」不信

도시 가정의 주부들은 쌀을 살때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農協중앙회가 서울시내 주부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쌀 구매 행동에 관한 조사」결과 주로 구입하는 쌀은 △ 특상품이 응답자의 33.2% △ 상품 56.6%로 상품 이상이 89.8%였고 △ 중품은 9.8% △ 하품은 0.2%에 불과했다.

또 쌀 품종별로는 △ 통일계쌀을 구매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였고 △ 일반미는 37.6% △ 아키바래쌀 33.4% △ 京畿米 14.4% 등으로 통일계쌀이 아닌 일반미 선호가 소

비자의 98%를 차지했다.

주부들의 쌀 품질에 대한 신뢰도는 △ 응답자의 51.9%가 포장된 쌀을 믿을 수 없다고했고 △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무공해쌀」에 대해서도 86.3%의 주부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쌀을 구입하는 횟수는 △ 월 1회가 전체의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 월 2회가 13.3% △ 월 3회는 1%였다.

쌀을 구입하는 곳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사람은 품질 점포위치 점포신뢰도 등의 순으로 꼽았다. <동아일보 10월 25일자 7면>